

## <유월절 꼭 지켜야 해?> - 출 12:21-28

### 1. 유월절의 의미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맥추감사절, 부활절과 같은 절기들을 꼭 지켜야 하나?”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절은 비슷하고, 부활절과 성탄절을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굳이 나눠서 다 지켜야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절기를 왜 따로따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각각 기념하여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은 ‘넘어가다’(pass over), ‘지나가다’, ‘~을 뛰어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증거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번 딱 한 번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장로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손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고 명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받은 은혜를 기념하며 은혜 베풀어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념하면 현실에 대한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념한다는 것은 믿음과 확신에 이르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우리는 매주 1부 예배 때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기간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유월절 잔치에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성찬을 통하여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 2. 유월절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혹시 저처럼 절기를 왜 기념하고 왜 지켜야 하

는지 의문을 품은 적 없으십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기념하게 하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피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

## <사랑의 표현, 십계명> - 출 20:1-17

### 1.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어릴 때 저와 제 동생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나름대로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언행을 하였을 때는 엄청 혼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장남인 저는 안그래도 동생보다도 엄하게 여러 교육을 받았는데, 목회자가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할 때부터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고 솔직히 때로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사역자로서 조금 더 잘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각종 언약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마 22:37-40).

이러한 십계명의 구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이고 종교적인 계명과 이웃간에 수평적이고 사회적인 계명을 결합시키고 있음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차원의 범죄입니다. 동시에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하여 다른 신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십니

다. 이러한 명령은 19:5-8에 언급된 언약의 관계에 기초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뿌리에서부터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질투하는’, ‘미워하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셋째 계명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헛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여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어떤 존재물의 이름 속에는 그 존재물의 능력이 현존해 있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이나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이름의 마술적 남용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도와 찬양, 감사 등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여호와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6일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즉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이웃에게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부모를 포함하여 이웃들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모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짓밟는 행위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2.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서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이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딱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키기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십계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딱딱한 규율집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십계명)을 주셨다.**

## <하나님과 언약> - 출 24:1-11

### 1. 순종의 다짐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만 시내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중에서도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모세에게 언약 중재자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와 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자,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의식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먼저 그는 시내산 아래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과 함께 수송아지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한 후 그들 위에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교제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려진 이 피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는 피로써 언약을 맺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양측 사람의 피를 교환해서 마셨는데 만약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피 흘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피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언약 체결이 마치자 모세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다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3:20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샬롬(평화)의 상태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이미 여호와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보혈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모세의 동행자들이 무엇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시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 출 34:1-9

### 1. 새로운 언약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여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먹서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모세에게 시내 산꼭대기에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처음 돌판처럼 새롭게 돌을 다듬으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화가 나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만들어 오는 돌판에 처음 돌판에 새겼던 말씀을 다시 새겨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

까요? 28절에 따르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들도 시내산의 일정한 곳까지는 오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무도 오르지 말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모세와 일정 부분 동행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심각한 죄를 지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깎아 만든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사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사, 그 죄를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 2.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언제나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 <동행하시는 하나님> - 출 40:34-38

### 1. 함께 하리라

출애굽 이후 1년이 걸려 성막 공사를 마쳤습니다. 완공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왕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여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통하여 모세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또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 이동할 때 그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곳에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머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이스라엘도 함께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만 따라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시고 지키사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까지, 나아가 일평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 2. 믿고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자.**

<참고문헌>

1. ESV 스터디 바이블
2. 출애굽기 산책
3. 현대성서주석
4. HOW 주석
5.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6. NICOT
7. QA시스템 성경연구
8. 라이프성경사전
9. 매일성경전집